

전성찬 교수, '제3세대 치료제 전자약' 특강

- 지스트 아카데미, 27일(월) <3월 조찬포럼> 개최... 전자약 등 미래 헬스케어 제시



▲ 지스트 아카데미가 오룡관에서 3월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 아카데미가 3월 27일(월) 오룡관에서 광주·전남 지역의 대표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디지털 시대의 헬스케어: 제3세대 치료제 전자약(Electroceuticals)'을 주제로 3월 조찬포럼을 개최했다.

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성찬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기술로 제3세대 치료제인 디지털 치료제*와 전자약*을 제시했다.

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 대비 개발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독성이 매우 낮고, 전자약은 ADHD, 파킨슨병, 악성 뇌종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약이 FDA승인을 받아 미래 성장가능성이 기대된다.

* 디지털 치료제: 과학적·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애나 질병을 예방·관리·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함

* 전자약: 전기, 자기장, 초음파 등 전자기적 자극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를 말함

전 교수는 전자약 중 특정 뇌 영역에 전기 자극을 주어 인위적으로 뇌를 활성화하고 뇌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인 '전기 뇌 자극' 치료 사례와 사용 기술을 소개했는데 특히 경두 채널 사용 기술을 사용하면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뉴런을 11배까지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전 교수는 뇌 자극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와 전자약의 미래기술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.

지스트 아카데미는 비학위과정으로 기술경영아카데미(2010년 개원)와 기후변화아카데미(2016년 개원)를 운영하고 있으며,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카데미 동문 및 지역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는 「지스트 아카데미 조찬 포럼」을 개최하고 있다.

지스트 아카데미는 각 분야 경영자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 강의를 통해 기업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영전략 등을 깊이 이해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며 지역경제 및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.